더민주-국민의당 공천전쟁 점화

양당간 눈치싸움 치열해질 듯… 상대방 거물급 정치인 저격 위한 '자객공천'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주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구 공천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나선다.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 16일 후보 공모를 마무리한 결과 246개 지역구에 381명이 지원해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초 370명이 등록을 마쳤지만, 이서령 대전 중구 지역위원장이 사퇴해 369명으로 줄었고, 온라인입력을 완료했지만 최종 제출을 못한 12명이 구제되면서 최종 신청자는 381명이 됐다.

국민의당은 19일 후보 공모를 마무리한 결과 330명의 신청을 받았다. 경쟁률은 1.3대 1이다.

안철수 대표는 서울 노원병에, 김성식 최고위원은 서울 관악갑에, 박왕규 더불어사는행복한관악 이사장은 관악을에, 이수봉 인천경제연구소장은 인천 계양갑에 각각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1일 오후 늦게 각각 지도부 회의를 열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22일 시작되는 후보자 면접을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다.

현역의원의 20%로 정해진 공천 배제 대상 등은 면접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는 호남지역부터 면접을 시작할 계획이며, 나머지 심사지역이나 일정은 공관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 후보자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단수 후보, 경선대상 후보들을 순차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면접에 앞서 당직자 등을 지역으로 내려보내 지역 실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의당 역시 21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차 공천 접수 마감 현황을 보고받고, 공천심사기준 등을 논의했다.

당 관계자는 "1차 공천 신청 현황을 살펴보고 한 지역구에 지나치게 많은 후보가 몰렸거나 후보가 없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천이 본격화되면 양당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등 여야 경합지역은 물론 호남 역시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선거판세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양당이 상대방의 거물급 정치인을 저격하기 위한 '자객공천'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더민주는 호남과 수도권의 탈당파 의원 지역구에, 국민의당은 친노계 지역구에 맞춤형 공천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는 더민주 이용섭 전 의원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정읍에는 더민주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또는 김병관 웹젠 이사장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갑에는 국민의당 김유정 전 의원이, 유기홍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갑에는 김성식 전 의원이 각각 도전장을 던진다. /이성주 기자

표창원 더민주 비대위원 전북 방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9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당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표 비대위원은 더민주 전북도당에서 "정동영 전 의장이 국민의 당으로 입당했지만 전북도민이 정권교체의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실어주실거라 믿는다"며 "4.13총선에서 전북 10석을 모두 석권할 수 있도록 당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위원은 이어 "중앙당 총선정책공약단 내에 농어민상생본부를 두고 농어촌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약화 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비대위원이 전북도당을 찾아 당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유희태·박종덕 예비후보, 더민주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 등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여야 전북도당, '국민의당 입당' 정동영 총공세

새누리 "실망반 기대반"… 더민주 "야권 분열 앞장"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한 총공세가 이어졌다.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정 전의원의 국민의당 입당과 4.13 출마선언이 잘못된 일이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은 19일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제20대 출마 선언과 관련해 "구태벗고, 전북발전 위한 선의의 경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당은 "전북도민은 전북에서 배출한 거물급 정치인이 활동 무대를 수도권으로 옮겼다가 다시 정치적 고향인 전주에 돌아온 것을 두고, '실망반 기대반'이다"고 꼬집었다.

전북도당은 이어 "정 전의원이 출마선언하면서 전북의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정치를 부활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정 전 의원의 정치행보가 본인이 말한 대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 "앞으로의 정치행보 본인 말한 대로 되길"
더민주 "정권교체 바라는 국민 기대 저버린 행위"

전북도당은 "전북을 대표한 '기득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북의 저성장과 저발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었다는 데 더 큰 실망과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정 전 의원에 대한 복귀 논란을 뒤로 하고 전북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하 더민주 전북도당)도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정동영 전 의원이 결국 분열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더민주 전북도당은 분열정치의 책임을 정 전의원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정 전 의원의 국민의 당 입당과 전주 출마는 야권 통합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전북정치 복원을 기대하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다"면서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또한 "새천년민주당 탈당, 당의장까지 맡았던 열린우리당도 탈당, 민주당 탈당,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 정동영 전 의원 정치활동은 탈당과 복당, 탈당으로 점철됐다"며 "서로 힘을 모으자며 내민 손은 뿌리친 채 어제의 동료, 함께 한 당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정동영 식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이어 "정동영 전 의원은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 정도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분열의 정치에 맞서 멋지게 승리할 것"

정 전의원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김성주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대로 '대륙으로 가는 길이 덕진으로 오는 길'이 되고 말았다. 순창에 내려올 때부터 씨감자 재배가 아니라 덕진 출마가 목표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됐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 전의원의 이번 국민의당 입당과 덕진 출마는 3번째 마지막 패착이 될 것"이라며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낡은 정치, 분열의 정치와 한 판 싸워 멋지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 투자유치·사후관리 허점 많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 지적

전북도 투자유치와 사후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4·사진)은 "4년 전, 전북도는 유턴기업 유치 목표를 300개 이상으로 잡고 10만명 고용 창출을 공표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끈 바 있다"면서 "당시 유턴기업 21개사와의 MOU 및 부지매입 계약을 시작으로 유턴기업 집적화 사업은 현재까지 총 28개사와 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1~2년 동안엔 유턴기업 얘기는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말았으며 심지어 전북도는 123억원을 투입, 올해 준공을 앞둔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사업에 대한 보고자료를 의회 업무보고에서 조차 생략해 지지부진한 사업의 고의누락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OU를 체결한 28개의 유턴기업 중 현재 10곳만 가동 중이며, 2곳은 준비 중이거나 연락두절 상태, 나머지 16곳은 아예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곳은 입주계약과 실시설계까지 마치고도 포기했으며 건축허가와 착공에 돌입한 이후에 투자를 철회한 곳도 2~3곳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전북도와 익산시의 유턴기업 유치는 현실과 괴리된 투자유치 전략과 사후관리 부재로 실패와 상처만 남겼으며 향후 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행자위, 올 한해 중점과제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양성빈, 이하 행자위)는 지난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주요 성과와 2016년 중점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행자위는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치행정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양성빈 위원장(장수)은 2016년 자치행정국 소관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이 7개인데,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이 도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들이 많아 홍보가 중요하므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알리는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인사사전예고제를 통해 인사원칙이나 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이후에 인사가 이루여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성환 의원(전주3)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은 오랜 기간 도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직원들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전북도의 광역과 기초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게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갈등을 조정 관리 할 것을 주문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관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록물을 잘 유지·관리해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금감원 전주사무소 지원 승격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사진)은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의 지원 승격을 환영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내내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의 지원 승격이 마침내 이뤄졌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 전주사무소의 민원처리 건수는 전국 지방사무소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주사무소의 민원처리 건수는 총 4,476건으로, 같은 기간 다른 지역 사무소가 860~1,400건인 것과 비교할 때 무려 3.5배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인력 증원만 있고 직제 개편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에 이어 올 10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맞춰 금감원 전주지원이 제대로 된 직제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 덕진·익산을선거구 등 과열·혼탁지역 지정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주시덕진구, 익산시을, 남원시순창군선거구를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예방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일까지 매월 2~3개 선거구를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해 돈 선거, 비방 흑색선전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서도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24시간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해 적발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저 총선 출마합니다

더민주 김윤덕 의원, 예비후보 등록 마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사진)은 지난 19일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지역현안 해결사로 활동했던 초선의원의 역할을 뛰어넘어, 이제 당당한 전북정치를 향한 재선의원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최형재 예비후보, 생활정치 주장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예비후보(전주완산을·사진)는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있는 여의도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정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형재 후보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상조 서비스'를 설립해 표준화되고 저렴한 상조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보육 시설의 단계적인 국공립화로 전환,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일자리를 위한 '5060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시민들이 정치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치는 여의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곳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생활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성은순 예비후보, 장애인들과 의견 교환

더불어민주당 성은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덕진·사진)는 최근 인후3동 열린교회에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성 예비후보는 "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며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 같은 장애인 기업 육성 등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려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합쳐져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김근식 예비후보 "정동영 경선 참여 결단 환영"

국민의당 김근식 예비후보(전주 덕진·사진)은 정동영 전의원의 경선 참여 결단을 환영했다.

김 예비후보는 "백의종군이 덕진 출마라는 의미가 의아하기는 하지만, 출마를 선언한 만큼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경선은 당에서 정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정동영 전의원도 공정한 경선, 승복하는 경선 통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